

역사·운명따라 흐른 화업 60년 ‘시대의 몽타주’로 마주하다

신학철 화백 회고전...내년 3월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실험미술부터 민중미술까지 시대적 통찰 담아낸 작품세계
과거·현재 아우른 회화작품 89점·아카이브 50여점 한자리

한국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신학철 화백이 광주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어 눈길을 끈다. 내년 3월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2 전시실에서 진행되는 민주인권평화전 ‘신학철 - 시대의 몽타주, 60년 회고전’이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신 화백은 격동의 시대 속 서민들의 삶과 이상세계를 작품 속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60여년 간의 방대한 작품 세계를 망라했다. 그의 초기작부터 최근 작업에 이르기까지 회화 89점, 아카이브 50여점을 선보인다.

신 화백은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 일원으로 활동하며 실험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70년대에는 사진 몽타주와 콜라주를 활용해 산업사회와 대량소비사회가 초래한 물질 숭배와 현실의 단면을 드러냈고 1980년대 이후에는 포토리얼리즘을 통해 역사적 실체를 화면에 담아내며 사회적 이슈를 예리하게 다뤘다.

그의 작품세계는 시대적 맥락 속 깊은 공감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시는 크게 ‘해체와 재구성의 신체 몽타주’, ‘망각된 역사의 소환’, ‘시대를 위한 기념비’ 3개 섹션으로 나뉜다.

‘해체와 재구성의 신체 몽타주’에선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 경향과 다양한 미술사조의 영향을 받은 작가의 초기 작품을 모아냈다.

1965년 대학 재학 시절 그린 ‘정물’은 회갈색의 차분한 색감 속 독특한 표현방식이 돋보인다. 동물의 두개골과 질박한 웅기 등 당시 정물화와는 차별화된 소재와 나이프를 활용한 거친 질감이 특징이다. 사물을 실로 감아 연결해 하나의 오브제로 재탄생시킨 ‘부활’, ‘변신’ 시리즈도 선보인다.

‘망각된 역사의 소환’에선 ‘한국근대사’와 ‘한국현대사’ 연작이 전시된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급변한 한국사회의 흐름과 함께 거대 담론에서 개인 서사로 전환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올린 하나의 덩어리 형상의 연작들은 당시 혼란스러운 한국사회를 오롯이 형상화한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시대를 위한 기념비’ 섹션에서는 중산층과



‘변신 3’(1980)

소시민을 주인공으로 격동기 역사 속 그들의 삶을 조명한 작품을 전시 중이다. 서민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고향 풍경과 같은 이상향을 담은 작품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작가의 예술세계에 큰 분기점이 된 작품을 조명하는 특별섹션도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며 제작된 ‘한국현대사-초혼곡’, 1980년대 한국사회의 정치적 억압과 예술품 검열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화제가 된 작품 ‘모내기’가 관객들을 맞는다.

피투성이로 일그러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에 굵이 굵이 이어진 민중의 항쟁을 표현한 ‘한국현대사-초혼곡’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의 의미를 담



‘모내기’(1993)

고 있다.

약 30년 만에 바깥나들이를 하게 된 ‘모내기’ 작품은 신 화백이 1983년 원본을 재제작한 것이다. 1989년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적표현물로 몰수된 작가의 ‘모내기’ 원작은 유죄 판결을 받아 아직도 반환되지 않고 있다.

2002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서 공개한 가로 20m 대형작품 ‘갑순이와 갑돌이’를 비롯해 지난해 완성된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까지, 오랜 시간 폭력과 파괴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며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는 신 화백의 작업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기자

“민중미술 원동력 된 광주 회고전 큰 영광”

인/터/뷰 광주서대규모 회고전 갖는 신학철 화백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중미술 작가들에게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이렇게 대규모 회고전을 갖게 돼 고맙고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난 16일 광주를 찾은 신학철 화백은 이번 회고전을 여는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규모 회고전은 1960년대 실험미술 작품에서부터 1980년대 민중미술 작품, 최근 작업까지 신 화백의 지난 60여 년 화업 인생을 반추하는 전시다.

“그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작품을 한자리에 볼 수 있게 돼 좋아요. 한국근대사라든가 한국현대사 연작, ‘모내기’ 같은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개인전은 6~7차례 했는데, 이 정도의 대규모로 여러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회고전은 처음인 것 같네요.”

실로 사물을 감싸는 초기 오브제 작업을 비롯해 여성 잡지 등 상품 광고에 등장하는 사진 이미지를 활용한 콜라주 작업, 포토몽타주 기법으로 묘사된 대형 역사화 연작까지...

다양한 작업 방식을 보여오고 있지만, 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 화백은 자신을 모더니스트 미술가라고 이야기했다.

“미술로 사회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보며 민중미술을 떠올리죠. 저는 운동권은 아니에요. 화가가 이 시대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생각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민중미술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어느 시대나 화가라면 현실사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공동체 정신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서사에 초점을 맞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현대사 연작 중 ‘갑순이와 갑돌이’는



‘한국현대사-갑순이와 갑돌이’ 작품 앞에 선 신학철 화백

개인의 인생사를 통해 거대한 에너지를 품은 한국사회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광주 민중미술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면, 저는 수많은 개인의 희생과 처참한 죽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작업을 펼쳐내려 합니다. 총

을 든 시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싶어요. 외부인이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봐요. 광주 5·18을 포함해 앞으로도 한국근대사·현대사 연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명진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